

비오는밤.

좌— 철석! 파도소리 문살에 부서져
잠살포시 꿈이 흐터진다。

잠은 한낱 검은고래떼처럼 살래여,
달랠 아무런 재조도 없다。

불을 밝혀 잠옷을 정성스리 여매는
三更。
念願。

憧憬의 땅 江南에 또洪水질것만시퍼,
바다의 鄉愁보다 더 호젓해 진다。

一九三八、六、十一、

비오는 밤

좌— 철석! 파도소리 문살에 부서져
잠 살포시 꿈이 흩어진다.

잠은 한낱 검은 고래 떼처럼 설래여
달랠 아무런 재주도 없다.

불을 밝혀 잠옷을 정성스리 여미는
삼경.
염원.

동경의 땅 강남에 또 홍수질 것만 싶어
바다의 향수보다 더 호젓해진다.

1938. 6. 11.